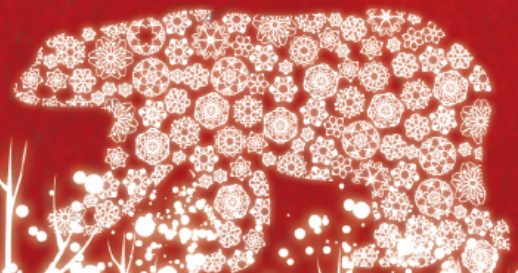




프시케 이야기

Psyche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인 프시케(psyche)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주 이름으로 갖은 고난을 거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이다.



프시케 Story
창간 배경

심리학과, 귀를 기울이다.

난 2012년 10월,
심리학과 역사상 처음으로 심리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심리학과 발전
계획안 및 실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3~5명이 한 팀을 이루어 제출된 많은
아이디어들은 현 심리 학과에 존재하는
문제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생각들을 담고 있다.

발전, 소통(疏通)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들 중 과내 소식지 (프시케
스토리) 발간을 제안한 '프시케 스토리'팀
(황제욱.07, 정지연.10, 황해지.10)이 대상을
받았다. 이 아이디어는 최근 대학생들의
개인주의적 분위기와 함께 심리학과 내
소통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내 소식지를 대안
으로 제시하였다.
이 '프시케 스토리'는 동기들, 선후배 뿐 만
아니라 교수님, 대학원-학부생 간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낼 것이라 기대한다.

프시케 스토리?!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인 프시케
(psyche)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주의 이름으로, 갓은 고난을
거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을 의미한다.
프시케 스토리에는 학과 행사, 취업관련
정보, 수업 정보, 공지 사항은 물론 교수
님과의 대화, 선배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Contents로 구성하여 학과 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리학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프시케 Story
Vol. 04

CONTENTS

- 04 청춘! 우리들의 추억 그 네 번째
- 06 청춘, 세상으로 진출하라!
- 08 혹시 나도 ADHD?
- 10 선배가 추천하는 일반선택
- 12 인지신경실험실소개
- 14 심리 검사의 이해
- 16 Healing의 심리학 네 번째 이야기
- 18 Old & NEW

청춘, 우리들의 추억 그 네번째

정연목 기자 cjswp327@naver.com

9월 6일 개강총회



새로운 학기를 함께 맞이하는 자리인 개강총회! 2학기 개강총회가 9월 6일에 열렸습니다. 1학기 동안 썼던 학생회비 내역을 공개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2학기 복학생의 자기 소개 시간도 가졌습니다. 2학기도 재미있고 신나게! 으쌰으쌰 힘냅시다!

14학번 권도희

이날 생각지도 못하게 부총대로 당선되어 많이 당혹스러웠는데, 그만큼 동기들이 저를 믿어준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방학동안 못봤던 동기들, 선배들을 오랜만에 보아서 분위기도 활기차고 재밌었습니다.

14학번 여승구

방학을 보내고 맞이한 첫 행사였던 만큼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아서 분위기도 좋고 기분도 좋았어요. 특히 총대를 새로 뽑았는데 규환이가 뽑혀서 이번 2학기도 잘 보낼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복학생 선배들이 인사하실때는 나도 저런 날이 올까 싶어서 부럽고 슬프기도.. 총무로서 밥값 술값도 직접 깎아보고해서 특히 보람차고 재밌었던 하루였습니다!!

9월 11일 ~ 25일 문창체전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의 문창체전이 있었습니다. 농구, 축구, 배드민턴의 종목으로 치룬 이번 문창체전! 우리 심리학과는 당당히 종합 3위를 하였습니다!! 직접 경기를 한 심리 대표 선수뿐만 아니라 심리 응원단의 열기가 다른과에 비해 독보적으로 뛰어났다는 별! 특히 이동훈 교수님과 조교 선생님께서 문창체전의 마지막 결승이었던 축구경기를 직접 관람, 뒷풀이까지 참가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과부심(과 + 자부심)이 한껏 상승하는 날이었어요!

14학번 조하린

저는 배드민턴 경기를 했었는데! 동기들이 매번 응원하러 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경기하는 내내 긴장되기도 했었지만 재밌었어요. 우승을 못해서 아쉬웠지만 다같이 호흡 맞춰가며 해나간 것이 정말 뜻깊었습니다! 같이 경기했던 한별이랑 숙정언니랑 다음엔! 수고했어♥



9월 26일 문창제 가요제

사회대 잔디밭에서 펼쳐지는 사회대 가요왕을 뽑는 무대! 문창제 가요제가 9월 26일에 열렸습니다. 사회대의 음악동아리인 해도비, 해오름의 축하무대와 7개 학과의 참가자들이 무대를 꾸며주었는데요! 우리 심리학과는 유일하게 댄스팀을 올려보냈습니다. 아쉽게도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모든 남성들이 물개박수를 치게 만드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보기 비뻐 사진을 못남긴 것은 안 비밀.

14학번 김찬미

문창 '가요제'임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성희랑 춤을춰서요!! 다들 발라드부르고 랩하고 노래하는데 우리는 신나게 흔들고 춤추니까 색다르고 재미있었어요 ㅎㅎ 아쉬운점은 없어요 ㅎㅎ 내년에도 춤추게 해주세요 문창제 최고! PS. 해도비짱♥



10월 2일 주막

세월호 참사로 인해 2학기에 시행된 대동제! 우리 심리학과는 Bar 컨셉으로 주막을 열었습니다. 오픈부터 마감까지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손님으로 넘쳐났는데요! 상당한 흑자가 났다는 소문이(소근소근) 재밌는 주막을 만들어 주신 14학번 학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14학번 서현지

처음엔 적자일까봐 걱정이 많이 했는데 다같이 열심히 진행했더니 엄청난 흑자!! 저는 손바닥을 데였었는데ㅠ 그만큼의 보람이 있었어요! 주막하면서 안친했던 동기, 선배들과도 많이 친해져서 좋았구 정말 재밌었어요 !!



10월 31일 대학원 발표회

우리 심리학과 대학원생 선배님들이 논문을 최종발표하기 전에 자신의 논문에 대해 미리 짧게 설명하는 대학원 발표회가 10월 31일에 열렸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꽤나 오랜 시간동안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발표를 진행해주신 선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09학번 이근영

논문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재밌었어요! 다들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그만큼 열심히 한 흔적이 보여서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정말 진지하게 학생들 발표에 집중해주시고, 코멘트까지 달아주시고 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발표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12월 5일 취업특강

12월 5일, 심리학과 98학번, 07학번 선배님들의 취업특강이 있었는데요. 먼저 사회에 진출하신 선배님들의 이야기에 저희 후배들은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으로 진출하라! 대외활동을 소개합니다!

대학생이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 단어는 '자유'입니다.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대학생들은 시간표 짜는 것부터, 자취, 동아리활동 등 많은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기만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막함을 느끼는 학우분들을 위해, 대학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외활동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대외활동, 이는 쉽게 말하면 학교 바깥에서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요즘은 대외활동 문화가 많이 확산되어, 각종 서포터즈, 기자단, 봉사활동, 멘토링, 기획단 등등 대학생이 해볼만한 많은 종류의 대외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내봉사, 해외봉사, 멘토링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대외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국내봉사

(1) SK sunny

SK그룹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자원봉사단입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인지도가 있는 봉사활동이며, 학교폭력에 노출된 아이들, 소외된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합니다.

활동혜택으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차후 sunny프로그램에 지원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모집기간은 상반기 3월, 하반기 8월입니다.

(2) 상상발룬티어

상상발룬티어는 KT&G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단입니다.

기획봉사단의 성격이 강해서, 미리 정해진 봉사활동이 아니라,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기획하여 활동을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노인 돕기, 김치담그기, 벽화봉사 등이 있습니다. 활동혜택으로 봉사실비, 봉사활동인증서, 우수봉사자 해외봉사활동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집기간은 7~8월입니다.

(3) 위시엔젤

위시엔젤은 메이커어위시재단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단입니다.

위시엔젤로 선발된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전사항으로는 재단입사 (인턴, 실습생 등) 지원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모집기간은 5월, 11월입니다.



2. 해외봉사

(1) 해피무브 글로벌청년봉사단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봉사활동입니다. 주로 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등지에 파견되며,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개 교통안전봉사, 문화봉사, 건축봉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모집대상은 18세 이상 대학생 또는 휴학생이며, 참가자는 파견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방학기간에 2주 가량 파견되며, 모집기간은 6월, 11월입니다.

(2) 카페베네 청년봉사단

'커피처럼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는 모토아래 실시된 카페베네 주관 봉사활동입니다. 모집대상은 18세 이상 카페베네 멤버십고객이며, 조별봉사활동, 카페베네 홍보대사, 재난구조활동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참가자는 봉사활동비 전액, 바리스타 교육기회, 카페베네 인턴시 가산점, 봉사시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3월입니다.

(3) GLOVE 해외봉사단

G마켓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봉사활동입니다. 현재 22기수까지 활동이 진행되었을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집대상은 20~30세 대학생 및 일반인이며, 참가특전으로는 파견 전액지원, 봉사활동인증서 발급, 문화탐방기회 등이 있습니다.

이 역시 방학 기간에 파견되므로, 모집기간은 방학하기 전인 5~6월, 10~11월입니다.

3. 멘토링

(1) 삼성드림클래스

드림클래스는 삼성에서 중학생 방과후 학습지원을 위한 멘토링 사업입니다. 주중이나 주말에 대학생강사가 중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등을 가르쳐주는 멘토링 활동을 합니다. 또한 방학시기에는 캠프를 운영하여 1달간 합숙하며 멘토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한 대학생강사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모집기간은 5월, 11월이며, 인원 충원이 필요할 시에 수시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2) KB희망공부방 멘토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돕는다는 목적아래, KB국민은행에서 주관하는 멘토링 사업입니다. 선발자는 학습의지가 있는 어려운 청소년이나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 진로멘토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멘토로서 참가특전으로 활동비 및 장학금이 수여되며, 모집기간은 5월과 12월입니다.

(3) 한국장학재단 지식멘토링

'국가장학금'으로 많이 알려진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멘토링 사업입니다. 방학기간동안 대학생이 초, 중, 고등학생 멘티에게 학습 지도 및 진로고민상담 등의 멘토링을 수행합니다. 참여특전으로 멘토링에 필요한 활동경비 지원,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명의 활동확인서 발급, 지도자급멘토링 지원시 우대 등이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6월입니다.

혹시 나도 ADHD??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란 발달적으로 부적응적이고 지속적인 부주의, 과도한 운동성, 충동성의 문제가 개인이 적절히 기능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5~7세에 발병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발견되며 전체 학령기 아동 중 6%에서 많게는 12%까지 ADHD를 겪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 증상으로는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주의

먼저, 첫 번째 핵심증상은 **부주의**입니다.

ADHD 아동은 주의력을 지속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무시해야 하는 자극에 쉽게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부주의 ADHD인 경우 다음과 같은 말들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 기울여 들지 않는다.", "끝맺음을 잘 못한다.", "쉽게 산만해진다.",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지를 않는다.",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일을 끝내지도 않고 다른 일을 벌인다"...

과잉행동

두 번째 핵심증상은 **과잉행동**입니다.

안절부절, 꼬부락거림, 불필요한 움직임 등으로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 "마치 모터가 달린 것 같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과잉행동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충동성

마지막 핵심증상은 **충동성**입니다.

지시를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자주 부주의한 실수를 초래합니다. 충동성은 과잉행동과는 구분이 잘 되지 않아 DSM-5 진단기준에서도 이를 묶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ADHD인 아이들은 학업, 일에 있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들어 외톨이가 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좌절에도 취약해서 여러 문제를 함께 갖기 쉽습니다. 함께 겪는 어려움으로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물질남용, 기분장애, 품행장애 등이 있습니다.

ADHD는 보통 아동기 때 발생했다가 성장하면서 증상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성인으로 이어져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중부라인병원 마티아스 루돌프(Matthias Rudolph)박사가 제2회 마인츠 ADHD심포지엄에서 한 발표에 따르면 ADHD인 아동의 30~66%는 성인이 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성인 ADHD는 아동과 증상이 다르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기 때보다 과잉행동이 크게 줄어드는데요, 억제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성인이 되면서 발달하면서 충동성향이 자연스럽게 억제되고 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 ADHD의 경우 실수를 많이 하거나 분위기를 파악을 하지 못하는 등의 부주의 문제가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럼 한번 ADHD 진단 기준을 살펴볼까요? 현재 DSM-5에 의하면 부주의나 과잉행동-충동성 둘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ADHD로 진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주의 다음 증상 중 6가지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 (성인의 경우 5가지)

- 세부 사항을 간과하거나 놓치는 등 부의한 실수를 저지른다.
- 강의나 대화 중, 또는 긴 읽기 동안 주의집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할 때 듣지 않는 것 같다.
- 공부나 일을 시작하더라도 금세 주의를 잃고 쉽게 결길로 샌다.
- 정리정돈을 못하며 업무에 있어서도 체계적이지 못하며 마감기한을 맞추지 못한다.
-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나 과제를 싫어하고 기피한다.
- 필요한 물건들을 잘 잃어버린다.
- 외부의 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진다.
- 문자 답장하기, 고지서 지불하기, 약속지키기 등 일상적 활동을 잘 잊어버린다.

과잉행동-충동성 다음 증상 중 6가지가 6개월 이상 지속 (성인의 경우 5가지)

- 손이나 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움직인다.
- 교실, 사무실 등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기 힘들다.
- 상황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
-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기가 힘들다.
- 끊임없이 활동하고 참을성이 없다.
-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한다.
- 다른 사람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
-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간섭하거나 빼앗는다.



모든 병이 그렇듯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에디슨, 모차르트, 수영왕 마이클 펠프스 등 유명인사들도 ADHD였다는 사실!! ADHD가 있는 것이 실제로 이득이 될 만한 것은 없지만 분명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점을 발견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

선배가 추천하는 일반선택

노회완 기자 uiooop32@naver.com

일반선택이 뭐예요?

아직 일반선택에 대해 의외로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일반선택'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선택을 교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양과 일반선택은 다릅니다. 교양을 일반선택이라고 착각하고 일반선택 학점을 채우기 위해 교양과목을 들을 경우 졸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선택이란 복수전공, 부전공, 주전공, 교양을 제외한 다른 과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선택은 교양과 달리 신청한 일반선택의 전공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기 때문에 교양보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과 전공을 듣는 것 외에도 일반선택 학점을 얻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첫 번째, 심화전공, 부전공, 복수전공의 이수학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학점을 일반선택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양에서 '6영역 제2외국어'는 일반선택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와 관련된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주의해주세요. 일반선택을 통해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나 생소하지만 알고 싶은 분야들에 대해 배운다면 좀 더 알찬 대학생활이 되겠죠? 지금부터 몇몇 선배들이 강력 추천하는 일반선택 몇 과목을 소개하겠습니다.



1 한국지리_ 지리교육과

심리학과는 대부분 문과출신 학생들이 지원하는 과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한국지리를 배운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한국지리를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개인적으로 한국지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수능이 끝나고... 한국지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거의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한국지리에 대한 사라진 지식을 다시 찾고 싶다면 '지리교육학과'의 '한국지리'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지리에서 다루는 내용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새록새록 기억나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심화내용도 다루고 있어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지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이 과목을 추천합니다.

Comment
수업 들 때마다 고등학교 때 한국지리 시간이 생각나서 어렵지 않아요.



2 한국 주거사_ 주거환경학과

이 과목은 친구의 추천으로 이번 학기에 듣게 된 과목입니다. 한국주거사는 '한국주택건축'이라는 주교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수업시간에 평면도와 사진 등을 통하여 현존하는 한국 전통주택에 대해 자세하게 배우며 한옥을 짓는 방법과 한옥의 구조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또한 과거 조상들이 사용한 가구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평소 한옥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한옥의 운치를 느껴보고 싶다는 분들에게 이 과목을 추천합니다.

Comment
수업을 듣고 나서, 나중에 꼭 한옥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 성윤리교육론_ 윤리교육과

20대라면 성에 대해 바로 알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나이입니다. 성윤리 교육론은 성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생각과 현재 일어나는 성문제, 그리고 실생활에서 성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배웁니다. 수업이 거의 교수님과 학생들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알기 힘든 성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이라는 입소문을 탔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Comment
수업이 토크쇼처럼 진행되어서 좋았어요, 꼭 들어보세요^^



4 근현대정치사상사_ 윤리교육과

이 과목은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친구가 추천하여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근현대 정치사상사에서는 마키아벨리나 칸트나 홉스 같이 많이 들어봤던 사상가들의 사상에 대해 철학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그 사상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시대적·사적 배경 등을 배웁니다. 또한 그들의 주요사상이 현대 정치사상에 미치는 영향과 의의 등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교수님께서 다 같이 만들어 가는 수업을 지향하시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한명씩 짝을 지정하여 짧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평소 정치와 철학에 관심이 많고 질의응답이 활발한 수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과목을 추천합니다.

Comment
교수님께서 정말 유쾌하시고 수업내용도 재미있어요.

넌 누구냐!?

인지신경심리학 실험실 'PNUROPSY'

이현두 기자 zseungjunz@naver.com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심리학과 6개 실험실 중에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인지신경심리 실험실에 대해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인지신경심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한번 알아보까요?

먼저 인지신경심리학이란?

인간의 지각, 주의, 기억, 언어, 추리, 의사결정, 정서와 인지의 상호 작용 등 인간의 마음의 다양한 측면을 대뇌신경생리학적 지표들을 토대로 연구하는 기초심리학 분야입니다. 따라서 인지, 정서, 사회 활동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들뿐만 아니라, 대뇌의 생물학적 특성들과 구조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대뇌 반응을 비침습적으로 즉, 인체에 고통을 주지 않고 측정하는 fMRI, EEG 등의 방법론이 주로 사용되며, 저희 실험실도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대 인지신경심리실험실은 올 겨울에야 겨우 만 2년이 되어가는, 저희 지도교수님처럼 아주 젊은 실험실입니다.^^ 이동훈 교수님께서 지도하시는 인지신경심리실험실은 2013년 1월에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의 인지실험실과 발달실험실 사이의 작은 공간에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서 두 명의 대학원생이 공부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대학원생과 인턴이 들어오면서 점차 인원이 늘어났고, 2014년 하반기에 확장공사를 완료해서 현재의 사회대 507호 인지신경심리실험실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회대 507호에서는 주로 대학원생들이 연구 아이디어 개발과 자료분석을 하는 공간이며, 대뇌생리학적 실험은 부산대학교 병원 MRI실, 부산대 인지메카트로닉스공학과 대뇌인지신호측정 실험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주된 연구주제는 언어와 행동(Language-Action Interaction), 언어와 정서(Language-Emotion Interaction), 그리고 지각과 인지의 비교문화(언어적 차이)(Cross-Cultural(Language)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Cognition)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으로는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한국인의 행복심리" 연구단의 일원으로 정서와 지각의 문화 차이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연구자지원사업으로 "한국어 경어법의 사회인지적 기능"에 대해 인지신경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와 인지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화적 차이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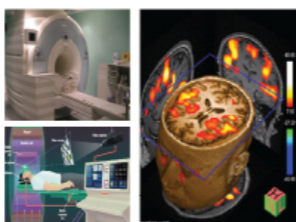
실시간 안구운동 측정



실시간 생체 신호 (호흡, 심박, GSR) 측정



자장을 이용한 외자극술



이외에도 세 명의 풀타임 석사 과정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각자 어떤 관심사를 갖고 공부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06학번 곽지랑

저의 관심분야는 언어 상대성(linguistic relativity) 가설입니다. 언어 상대성 가설은 Whorf의 가설로 언어의 구조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사고와 인지에 영향을 미쳐서 사고 유형과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주장입니다. 쉽게 말해, 한 언어에 어떤 특정 표현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표현에 대응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요. 각기 다른 언어권과 문화권, 더 좁게는 개인 간에 나타나는 행동·사고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 이러한 언어의 힘에 대한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08학번 김세원

저의 관심분야는 집단 정서(group emotion)입니다. 집단 정서란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일반화된 기분이나 정서로, 개인적 차원이 아닌 집단적 수준에서의 정서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기존의 많은 정서 연구와 구별됩니다. 집단 정서를 지각하는데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와 집단 정서 인식에 대한 동·서양의 문화차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09학번 이용인

저의 관심분야는 은유(metaphor)입니다. 은유라 하면 흔히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오오"처럼 무언가를 다른 것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문학적이고 장식적인 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은유는 우리의 일상에 매우 깊이 스며든 말하기 방식입니다. 가령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많다"처럼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표현들 아래에도 은유의 메커니즘이 깔려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시간"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물처럼 흘러가거나 물건처럼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친숙하고 구체적인 개념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흐르다", "많다"와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상들을 추상적인 개념에 적용하며 이해해왔기 때문이지요. 은유의 메커니즘을 통해 말 그대로 "개념"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은유의 기제를 통해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능수능란하게 학습하고 사용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은유란 단순한 말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개념 수준과 사고방식 수준에서 이뤄지는 문제일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 실험실에는 이동훈 교수님과 1명의 박사 과정생, 4명의 석사 과정생, 그리고 3명의 인턴 학부생이 있습니다. 세 명의 인턴 학부생 중 두 명은 이듬해 봄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할 예정입니다. 교수님부터 인턴까지 다들 각자의 페이스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서로의 독특한 특성들을 인정하고, 서로의 단점들을 채워가며 협력하는 것이 우리 실험실 구성원들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연구실의 계획과 최종 목표가 있다면?

아직 신생 연구실인 만큼 다양한 주제의 많은 연구들을 겁 없이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만한 결과는 많지 않습니다. 단기간의 목표가 있다면 이러한 연구들이 각각의 연구 분야에서 훌륭한 연구 결과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면 인지와 정서, 문화라는 연구 주제들이 어우러져 인간의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는 하나의 큰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이론적 틀이 연구를 위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연구실 로그인 PNUROPSY는 부산대학교(PNU) 신경심리(NeURO-PSYchology)의 약자입니다. "피넛뉴로싸이"라고 읽어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http://psyneuro.pusan.ac.kr)도 운영되고 있으니 자주 방문해주세요~



심리 검사의 이해

장세영 기자 js00115@gmail.com



심리 검사는 성격, 지능, 적성 같은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들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이런 특성들을 양적, 질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터무니없는 '심리 테스트'와는 전혀 다른, 실제적이고 설득력을 갖춘 검사죠.

심리 검사는 검사 유형에 따라 크게 객관적 검사와 투사 검사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유형으로 경제적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모호한 자극을 제시하고 피검자의 자유로운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을 투사 검사라고 하는데요, 피검자의 의도적인 방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리 검사는 배경 이론과 실시 목적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 WAIS, MMPI, HTP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MMPI는 대표적인 객관적 검사이며, HTP는 쉽게 할 수 있는 투사적 검사입니다.

1) WAIS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웨슬러 지능 검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능점수, 즉 IQ 는 스탠포드-비네 검사의 결과 점수로,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5인 정상 분포에서 어느 위치에 놓였는지를 설명하는 점수입니다. 이 검사는 널리 쓰이기는 하지만 지능의 언어적인 측면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지능보다는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는데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능 측정에 있어 비언어적인 측면을 더불어 평가하는 웨슬러 지능 검사를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웨슬러는 지능을 "개인이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종합적, 총체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여, 이전에 제안되었던 지능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지능에 지적 요소 뿐 아니라 성격적 요소, 정서, 사회적, 운동능력, 감각 등을 포함시켜 폭넓게 개념화하였습니다. 이런 Wechsler의 입장은 이 검사가 단순히 '지능수준'을 평가하는 것뿐 아니라 개인의 성격을 반영해주는 역동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Wechsler 지능검사는 총 11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언어성 소검사가 6개, 동작성 소검사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성 소검사에는 기본 지식, 숫자 외우기, 어휘, 산수, 이해, 공통성 검사가 있으며, 동작성 검사에는 빠진 곳 찾기, 차례 맞추기, 토막짜기, 모양 맞추기, 바퀴쓰기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얻어진 수치들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양적 분석을 통해서 우선 피검자의 지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성 소검사와 동작성 소검사 점수간의 비교 및 소검사들의 분산을 분석함으로써 피검자의 지능에 대한 세부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MMPI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구조화된 성격검사입니다.

정신과적 진단분류가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오늘날에는 정신 병리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임상 집단과 정상인 집단 모두에 대해서 성격경향성을 평가하는 데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MMPI는 56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와 "아니다"로 대답하게 되어 있는 질문지형 검사입니다. 총 14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4개의 타당도 척도와 10개의 임상척도가 있습니다.

MMPI의 해석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다른 모든 검사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면담이나 다른 정보없이 MMPI 하나만으로 '무정보 해석(blind interpretation)'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MMPI는 피검자에 대한 가설을 제공하는 것이지 피검자에 대한 확실하고 완전한 특성 파악이나 구체적인 행동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MMPI의 결과지로는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으며, 검사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척도명	기호	약자
모르겠다 (Cannotsay)		?
L척도 (Lie)		L
F척도 (Frequency)		F
K척도 (Defensiveness)		K
건강염려증 (Hypochondriasis)	1	Hs
우울증 (Depression)	2	D
히스테리 (Hysteria)	3	Hy
반사회성 (PsychopathicDeviate)	4	Pd
남성특성-여성특성 (Masculinity-Feminity)	5	Mf
편집증 (Paranoia)	6	Pa
강박증 (Psychasthenia)	7	Pt
정신분열증 (Schizophrenia)	8	Sc
경조증 (Hypomania)	9	Ma
사회적 내향성 (Socialintroversion)	0	Si

3) HTP 집나무사람 검사

HTP는 집-나무-사람 검사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검자가 그린 집과 나무와 사람 그림을 통해 임상가가 수검자 내면의 욕구나 감정, 생각 등을 해석하는 투사 검사입니다. HTP와 같은 그림 검사는 사람들이 세계를 자신에게 형성되어 있는 심상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이는 투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이론적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검사를 위해서 피검자에게 집, 나무, 사람, 첫 번째 그린 사람과 반대 성의 사람의 순서로 각 종이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순서와 걸리는 시간 그리고 행동 특성들을 기록하며, 네 그림을 모두 그린 후 각각의 그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그림의 위치나 크기, 그린 순서, 필압, 세부 묘사, 대칭, 왜곡, 지우기, 검사에 대한 태도나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게 됩니다. 내용적인 요소에서는 집의 경우 지붕이나 문, 창문 등의 특징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나무 그림에서는 가지나 뿌리, 잎 등을, 사람 그림에서는 얼굴, 머리, 팔다리, 옷 등에 나타나는 특징을 이용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MMPI와 HTP는 직접 해보실 수 있는데요, MMPI는 부산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HTP는 <심리 평가>를 들은 친구에게 달려가서 부탁해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학기에 개설되는 <심리 평가> 수업을 들으신다면 여러 가지 심리 검사에 대하여 배우고,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심리 평가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Healing의 심리학 네 번째 이야기 A Beautiful Mind 뷰티풀 마인드

뷰티풀 마인드 (A Beautiful Mind, 2001) 드라마 | 2002.02.22 | 135분 | 미국 | 12세 관람가 | 감독_론 하워드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는 만큼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양해지고 있다.
심리학은 예전부터 꾸준히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온 학문이다.
따라서 심리학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며 때로는 재미있게 때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여러 영역 중에서도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심리학은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의 심리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조금은 어려웠던 부분들도 쉽게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영화들 중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 하고자한다.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는 미국의 천재수학자 존내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정신분열증을 잘 보여주는 영화로 손꼽히는데, 수학천재였던 주인공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인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수학 연구에만 몰두하는 인물이다. 아마도 그러한 상황 때문에 정신분열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학시절부터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 내는 등 정신분열증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이후에는 국가의 비밀임무를 맡고 그것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등 심각한 혼자만의 환상에 빠지게 되며, 정신분열증의 증세는 극도로 심해진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러한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더욱 깊이 몰입하게 된다.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주변의 모든 것을 잃게 된 주인공은 결국 아내의 사랑과 치료로 병을 극복하게 된다. 그러나 극복 과정에서도 병이 다시 도지고 회복되는 것을 수 없이 겪게 된다. 시간이 지나 주인공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 교수로 복직하게 되고, 자신이 내세운 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까지 받게 된다.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되었을 때 주변의 모든 교수들이 자신의 만년필을 전해준다. 이는 학자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최고의 표시임을 영화에서 말해준다. 주인공이 그의 병을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비록 그의 일생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힘들었고, 잃은 것도 많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극복했다는 것과 그 과정이 주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영화에서 가장 감동을 주었던 부분도 병을 극복하도록 힘이 되는 아내의 모습이었다. 본인도 환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봐주며 포기하지 않도록 관심을 주는 모습에서 사랑이 느껴졌다.

주인공이 겪었던 정신분열증이란 병은 결국 마음에서 오는 병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고 스스로 고립 시키려는 마음에서부터 병이 생겨났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관심과 사랑, 즉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영화라는 생각이 든다.

Old & New




안녕하세요! 2014년도 심리학과 학생회장 11학번 정연목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인사를 드렸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흘러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갓 제대하고 호기로운 철부지였던 제가 한 학과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심리학과에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제 걱정과 달리 처음부터 지금까지 과분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어 기쁩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학생회를 꾸려 나가는 데에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럴 때 마다 저의 옆을 지켜주었던 학생회 친구들 덕분에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 한해, 엄청 행복했던 만큼 아쉬움과 미련이 크지만! 저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물러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의 뒤를 이어 더욱 신나고 재밌는 심리학과를 만들어줄 우리 2015년도 심리학과 회장, 부회장을 소개합니다.

박성진 


반갑습니다. 11월 26일자로 선출된 2015년도 심리학과 회장 11학번 박성진입니다.

제가 새내기 때 총대를 하면서 학생회장을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이렇게 꿈을 이루었네요!

저는 앞에서 이끌어가기보다는 옆에 서서 함께 나아가는 학생회장이 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거침없는 질타 부탁드립니다.



김예진 

안녕하세요, 부회장 13학번 김예진입니다. 저는 1학년 때 사회대 집행부, 2학년 때에는 심리학과 학생회 활동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학생회의 일원이 아닌 리더로서 성진선배와 함께 심리학과를 잘 이끌어가고 보고 싶습니다!

선후배가 함께하는 심리학과를 만들어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 심리학과 학사 및 행사일정

- 2월** 신입생 오리간담회
선배님들~ 많이 오셔서 잘게 즐겨요^^
중지 않게 모시겠습니다.
- 3월** 입학식 및 개강총회 신복엠티
- 5월** 봄 산행 축제 및 주말
- 6월** 농활


학기 초에 풍성한 학과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리학과에 뉴페이스인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 아니면 학년, 학반을 막론하고 언제 또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과 선후배가 다같이 모여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부산대 심리학과도 싸이월드 클럽, 페이스북 그룹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SNS를 안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빠른 정보전달과 소식 알람에 SNS만한 것이 없죠? 각 학생회장들이 틈틈이 가입승인을 확인하고 있으니 가입하셔서 놓치는 정보 없기를 바랍니다~



프시케 스토리 기자단

- | | | | | | | | | |
|---|---|---|---|---|---|---|---|---|
|  |  |  |  |  |  |  |  |  |
| 12학번
함영은 | 상담심리전공
이현두 | 임상심리전공
안유빈 | 10학번
박은철 | 11학번
노희완 | 11학번
유푸름 | 11학번
정연목 | 12학번
이승민 | 13학번
장세영 |

 더 나은 프시케 스토리를 위하여 기사주제를 공모합니다. 더 알고싶은, 읽고싶은 기사를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자체선정하여 소개하겠습니다. 학생회장에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프시케 Story

발행일 2014. 12. 11
발행처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사회관 416호)
Tel 051. 510. 1561
Fax 051. 581. 1457
홈페이지 psy.pusan.ac.kr
기획·편집 부산대학교 심리학과